



#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 2025년은 우사신궁 창건 1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이타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우사신궁(宇佐神宮)은 전국에 있는 약 4만 곳의 하치만사의 총본궁이며, 신도와 불교를 함께 수용한 '신불습합'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치만오카미(八幡大神)가 현재 가메야마 땅에 모셔진 지 올해로 1300년을 맞이하게 되어, 여러가지 관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린지호헤이사이 축제 (축제)

10년에 한번, 천황이 특별히 파견한 사신인 칙사가 천황으로부터 받은 공물(폐백)을 봉헌하는 제례입니다. 이 중요한 의식을 기념하여, 오가사와라 · 다케다 두 유파의 유야마신사 의식과 불꽃놀이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일시】 유야마 의식 : 10/4 (토) 13:30~ (모모테 의식 10:30~)
- 제등행렬 : 10/5 (일) 18:30~
- 봉축 불꽃축제 : 10/5 (일) 20:00~
- 린지호헤이사이 축제 : 10/6 (월) 10:00~

【장소】 우사신궁

사진 제공 : 우사신궁

그 밖에도 고대의 우사시를 테마로 한 시대제, 에히메현 사이조시의 단지리 봉납, EXILE USA의 댄스 봉납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이타현 내를 둘러보는 순환버스와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있습니다!



우사신궁  
창건 1300주년  
특별전용 웹사이트

일본一の  
おんせん県おおいた  
味方も満載

運気も気分も  
あがるバス旅  
宇佐神宮御鎮座  
一三〇〇年

気軽にふらっと楽しめる!  
大分県がもっと好きになる  
バス旅がはじまります。

大分ゆめバス

詳しくはホームページをチェック



【本事業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大分ゆめバス運営事務局 (JTB 大分支店内)  
TEL: 070-3200-4983 | oita\_yumebus@jtb.com 営業時間 / 平日 10:00~17:00 ※土日祝は休日

宇佐神宮御鎮座1300年

おおいたよりみち  
スタンプラリー

2025年9月1日(月) ▶ 11月30日(日)

大分県の文化を体感したり、観光地を  
巡りながら、デジタルスタンプを集めよう!

由布院温泉  
白杵石仏  
おんせん県の  
ちょっとかわいい賞品  
が当たるかも!?

宇佐神宮  
御鎮座  
1300年

主催 大分県  
お問い合わせ先: 株式会社マイダ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TEL: 097-536-2677 E-MAIL: yorimichi@midas-net.co.jp

# 우사신궁 창궁 1300주년

~고신코사이 축제와 야부사메 의식을 다녀와서~

오이타현 국제교류원  
진한위 / 안수영

## 우사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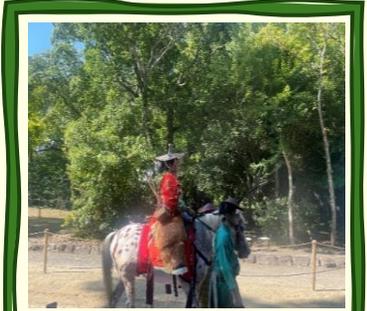


**우사신궁**은, 전국의 하치만사의 총본궁입니다. 하치만오키미는 오진천황의 어신령으로, 571년에 처음으로 우사 땅에 고지겐 <sup>1</sup>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사는 신대(神代)시절, 히메오키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으로 전해지며, 예로부터 개척된 땅이었습니다. 우사의 국조(国造)는 이 신을 모셔왔습니다. 그 후, 하치만오키미의 헤이안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게 되어, 이와 관련해 이와시미즈 하치만구가 창건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가지에 4만 개가 넘는 하치만구가 잇따라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본전은 '하치만즈쿠리'라 불리는 독특한 양식으로, 선명한 붉은 칠의 사전군은 오랜 세월의 숲에 감싸이듯 자리하여 장엄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창궁 1300년**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은 우사 신궁에서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의식인 야부사메가 열린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이치이가시 숲으로 들어서자, 매미 울음소리에 둘러싸이고, 붉은 도리와와 질푸른 나뭇잎의 대비가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간 듯했습니다.

<sup>1</sup> 구제를 위해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 야부사메

**야부사메**는, 말에 올라탄 채 전력으로 질주하며 화살을 쏘는 기마 무예입니다. 사수는 세 개의 과녁을 연달아 꿰뚫습니다. 야부사메는 헤이안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현재도 가나가와현 기마쿠라시의 쓰루가오카 하지만 구 등에서 매년 행해지는 긴 역사를 가진 의식입니다. 사수의 복장으로는 머리에 쓰는 유마보쿠 야부사메 전용 모자와 허리에 두르는 보호용 무카바키 등이 있으며, 마치 전설 속 인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장을 갖춘 사수는 오른손에는 채찍을, 왼손에는 활을 듭니다. 사수가 마장으로 들어가 달리기 시작하면, 큰 소리로 "인-요!"하고 외치며 화살을 시위에 걸어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고에"라고 불리는 소리입니다. 명중한 화살이나 과녁은 무적으로 소중히 여겨지며, 관람 후에는 기념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맹한 기수의 모습

## 국제교류원의 감상평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기사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활시위를 힘껏 당겨 화살을 쏘는 순간, "탁!" 하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과녁판이 멋지게 갈라지는 장면에서 압력이 넘칩니다.



한편, 달리기를 주저하는 말을 달래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과녁을 멋지게 명중한 분도 있었습니다. 과녁은 모두 세 개였는데, 세 번 모두 명중시킨 분도 있는가 하면, 맞췄다가 빗나가기도 하며 우여곡절이 있는 승부를 보여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수들은 두꺼운 여름 사슴가죽 옷을 걸친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성심껏 신성한 의식에 임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모습도 보였는데, '장래에 아버지처럼 섬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열심히 말을 탔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신중하게 마장을 걷는 모습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전국의 하치만구 총본궁이 창궁 1300주년을 맞이하는, 좀처럼 없는 특별한 시기가 우연히 겹쳤습니다. 올해 제가 이곳을 찾게 된 것도 귀한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겠지요.



한국 국제교류원  
안수영

우사신궁 창궁 1300주년을 맞아, 중국 국제교류원 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야부사메를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수들이 온 힘을 다해 의식에 임하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귓가에는 "안-요!"라고 외치던 사수들의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아이들부터 학생, 어른신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사수의 명중을 바라며 응원했습니다. 화살이 맞든 빗나가든, 돌아오는 사수와 말을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던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더위에 지친 말을 위해 출발을 미루며 기다리던 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부사메에는 사수의 기량 뿐만 아니라 말과의 깊은 유대감 또한 빠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야부사메를 통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앞으로 나아가, 사수가 과녁을 맞히듯 인생의 목표를 함께 이뤄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프로 사수의 아들들도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와 가족의 응원을 받아 완주해낸 미래의 사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 News from Oita City

## 오이타시 소식

오이타 유메이로 음악제 홈페이지

월드 페스타 홈페이지



### 오이타 유메이로 음악제 2025 10월25일(토) · 26일(일)

#### 뮤지컬 타운

이틀간 총 27개 회장에서 길거리 무대 개시!

· 일시: 10월25일(토) · 26일(일)

11:00 ~ 저녁 무렵

· 장소: 토요타 카를라 오이타 축제 광장, JR오이타역 북쪽 출구 광장 그 외



#### 유메이로 뮤직 콘테스트 2025

뮤지션의 "꿈"을 응원하다

뮤직 콘테스트개시!

· 일시: 10월25일(토) 18:00 ~

· 장소: 토요타 카를라 오이타 축제 광장



#### 파이널 나이트 잼

음악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스페셜 라이브!

화려한 4팀의 게스트 등장!

· 일시: 10월26일(일) 17:45 ~

· 장소: 토요타 카를라 오이타 축제 광장



chay

유야사 미치루

자매도시 · 미국 오스틴시의 뮤지션도 함께합니다!

### 오이타 월드 페스타 2025 11월1일(토)

#### ○세계요리 부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가 한자리에!



#### ○스테이지 퍼포먼스

세계 각국의 음악과 춤을 즐겨요!



#### ○교류 · 전시 · 판매 부스

와서 · 보고 · 알고 즐겨요!



11월1일 토, 오전 10:30 개시!

장소: 토요타 카를라 오이타 축제 광장



# News from Bungoono City

## 분고오노시 소식

분고오노시  
홈페이지



## 일본 최대 규모의 마애불 앞에서 명상체험

**분** 고오노시 아사지마치에 있는 보광사(普光寺)에서는 진언종의 명상법인 「아지칸 阿字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애불 앞에서 새소리와 자연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떨까요?



깊어지는 가을  
분고오노시에서  
근사한 시간을.

▲ 관광 정보는 이곳에서





## 세계 꿈 한 글자 콘테스트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세계 꿈 한 글자 콘테스트」

본 사업은 자시의 꿈을 한글자의 한자로 표현함으로써, 목표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꿈을 발견해, 자기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참가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으로, 서예라는 문화를 통해 국제교류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합니다.

### 2024년도 사업 실적

- 주최: 구니사키반도 아이 르네상스 연맹
- 내용: 영서에 한자 '한 글자 (붓글씨)'와 고른 이유를 적어 응모
- 작품 모집 기간: 2025년12월1일~2025년12월31일
- 응모 작품 수: 7,261건 ※작년도대비 596건 증가

<내역> 일본: 2,655건 대만: 4,451건 캄보디아: 74건  
 독일: 50건 프랑스: 20건 이탈리아: 11건  
 초등학생: 2,707건 중학생: 1,271건 고등학생: 2,058건  
 대학생: 753건 일반: 472건



매년 12월에 작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직접 창조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한 글자의 한자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응모기간은 매년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상세: <https://www.kunisakiairune.com/yumehitomoji/>

### 구니사키반도 아이 르네상스 연맹

〒873-0412 오이타현 구니사키시 무사시마치 후루이치 489번지 1 사무국 담당 마키 미호 연락처: 090-9492-9167

### 구니사키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사회교육 담당

〒873-0503 오이타현 구니사키시 구니사키마치 쓰루가와160번지 2 연락처: 0978-72-2121

# News from Himeshima Village

# 히메시마무라 소식

히메시마무라 홈페이지



## 히메시마 브리새우



히메시마 브리새우



히메시마 브리새우 샤브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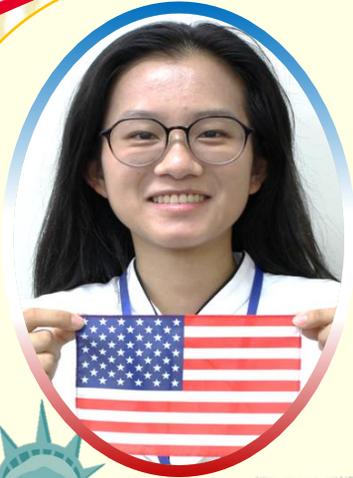
염전 터를 활용해 시작된 브리새우 양식은 연안어업과 함께 「히메시마 브리새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제철 생물」과, 연중 구입이 가능한 「동결 진공 포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요리법은 '샤브샤브'입니다. 브리새우를 살짝 데친 샤브샤브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히메시마무라에서는 매년 10월에 「브리새우 축제」를 개최해, 브리새우 회 및 튀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된 브리새우를 풍성하게 담은 도시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축제는 10월 19일 (일) 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국제교류원 부임인사

올해 7월, 새롭게 오이타현에 오게 된 국제교류원을 소개합니다!

오이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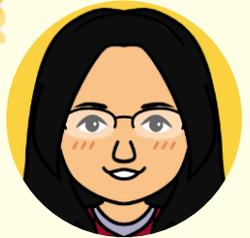
미국 국제교류원

엘리시ানা 린

Aliceana Lin

출신지: 미국 뉴욕 주

취미/특기: 러닝, 피크민 (게임)



Hey everyone, nice to meet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주에서 온 **린·엘리시ানা** 라고 합니다.

이번에 국제 교류원으로서 오이타현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고등학교 때 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면 배우수록 일본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해 점점 더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두 번의 단기 유학을 경험하며 후쿠이현과 교토부의 전통과 생활을 직접 체험했고, "일본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오이타현의 온천과 풍부한 자연, 그리고 지역의 식문화를 즐기면서,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긴장되지만, 앞으로 오이타에서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과 교류를 깊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내 취향에 맞춰 만들어주는?! 간장 가니 간장 합자 회사



영국 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2021년에 [유네스코 음식 문화 창조 도시창의도시]로 인증된 우스키시에 있는 가니 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니 간장은 창업 420년의 전통 있는 가게로, 모든 상품은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방문 손님에게 친절했고, 간장과 된장에 대한 장인정신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니 간장에 대해 [만들기 · 먹기 · 사기] 라는 세 가지 테마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 만들기

가니 간장의 상품은 제조부터 포장까지 한 병 한 병 손수 작업하는 데에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매장 옆에 있는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위해 견학을 간 날에는 마침 아마자케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마자케는 찌낸 찹쌀과 누룩을 섞어 보온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며, 완성까지는 약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고 있으니 정말 맛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간장, 폰즈, 된장, 샐러드 드레싱 등은 모두 매장에서 만들어지며, 갓 짜낸 무첨가 생 간장 [시보타다케노] (아래 맨 오른쪽 사진) 같은 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그램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생 누룩



### 가니 수제 아마자케



### 갓 짜낸 무첨가 생간장 [시보타다케노]



## 나의 우스키 산책



우스키역이 형형색색 종이함으로 가득!



풍부한 자연 속 우스키 공원에서 발견한 기원 회랑 (이노리 카이로우)!

이곳에서 찍은 스탬프



## 사기



가니간장에서는 무려 40종류 이상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까지 간장을 아시아 식재료를 취급하는 슈퍼에서만 구할 수 있었고, 종류도 진간장과 연간장 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간장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인기 1위 상품은 [쿠로다시 반초]라는 다시 간장으로 모든 종류의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니 간장의 매력은 매장에 있는 조미료 뿐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간장이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면, 그에 맞춰 매장에서 바로 간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맞춘 간장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에게 딱 맞는 조미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장 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혼합된 된장이나 맛있어 보이는 샐러드 드레싱 등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의 네이밍 센스도 뛰어나,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 유일무이한 상품은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

## 먹기



가니쇼유에는 "카페 카기야"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매장의 상품을 활용한 정식 메뉴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차가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두가지 종류의 된장을 곁들여 만든 특제 소스가 뿌려져 있고, 여기에 바삭한 식감의 된장 크런치를 함께 먹었는데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매장에서 주문하면 빈 간장병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아 제공하는 독특한 방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니간장의 정성을 담은 상품에 감동해 앞으로 건강한 발효식품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가니간장에 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조미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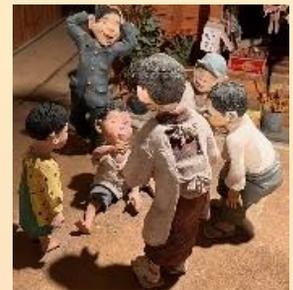
평일 아침, 관광객의 모습은 없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간다 보니, 레트로한 간판을 내건 생선  
가게와 과자 가게가 나타나 쇼와 시대의  
정취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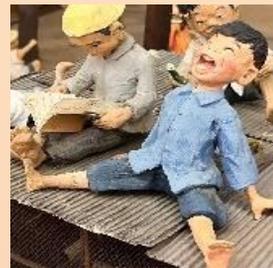
오늘의 메인은

## 「쇼와노마치 전시관」

쇼와 시대의 일상을 들여보았습니다.



550개의 인형은, 어느 하나 같은 표정이 없이 다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복한 얼굴, 불안한 얼굴, 그리고 안도하는 얼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후의 전시 공간 사이에는 약 1m정도의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  
1m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 쇼와 시대 학교 급식 체험



상점가의 가게에서 먹은 [불바르]의  
고래 다쓰타아게 정식

일본에서는 예전에 고래가 중요한 단백질원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예전에  
나무뿌리밖에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  
시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라, 목가짐을 가다듬  
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한 뒤 평소보다 더욱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지족상락 (족한 것을  
알면 항상 즐겁다)"이겠지요!



# 전통을 지키는 오이타 오이타시 평화시민공원 노가쿠당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분고 유우소카이  
작품전 전단지



분고시보리  
(쪽 염색)

무로마치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가면  
연극 '노(能)'.  
뮤지컬이나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주인공(시테)과 조연(와키)은 등장하는 입구부터  
다르며, 일본 전국의 노가쿠당은 무대 크기와  
시설이 비슷하다고 한다.  
일본 전통 문화를 지금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었다.

오이타시 노가쿠도 (能楽堂)에서 5월말~6월말에 열린 [분고 시보리  
염색전].

'분고시보리'는 에도 시대에 오이타 쓰루사키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염색 기법. 천에 주름을 잡은 후 염료로 색을  
입히면 자연스럽게 무늬가 생긴다. (얼룩말 무늬도!)

한 때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분고 유우소카이의 안도 선생에 의해  
다시 발견되어, 현재는 오이타현민들이 모여 함께 오이타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노가쿠당에서 아름다운 푸른빛의 쪽 염색 작품을 보며,  
오이타의 소중한 토착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노 무대

미인 가면을  
착용해보았어요!



오이타의 역사를 체감하다

## 오이타현립 매장 문화재 센터



[토기의 변천]

매장 문화재 센터에는 오이타현내 매립되어 있던 문화재를 정성껏 복원한  
다양한 전시가 있다.

오랜 세월 땅속에 잠들어 있던 동전 다발, 흙으로 정교하게 빚은 토기 인형,  
돼지와 같은 동물의 뼈까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인 전시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를 비롯한 유물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오이타현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이타현에도 구석 구석 상당히 많은 소중한 역사 문화재가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둘러보았다.

개관시간: 9:00~17:00

휴관일: 月曜日

주소: 오이타현 오이타시 마키미도리초 1-61

\*치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미니어처  
만들기 체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  
번 경험해보기를 추천한다!

←문화재에 표기 되어 있는  
[문화재 애호 상징 마크]



# From our Reporters

## 국제교류원 소식



### 오이타에 어서 오세요!

영국국제교류원 부텔 로사



얼마 전, 도쿄에서 오이타현에 새로 배치된 외국인 지도 조수 (이하 ALT)와 국제교류원 (이하 CIR)을 처음 맞이하러 다녀왔습니다. 크게 [OITA]라고 써 있는 보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긴장도 되었지만, 오이타현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는 맞이 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배로서, 앞으로 오이타현에서 일하게 될 ALT·CIR 모두가 오이타현을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이타현의 여러 지역에 배치된 ALT·CIR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까지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각 지역의 명물, 축제 등 추천 정보를 소개 할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안내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오이타현으로 돌아가는 게 기대된다!"고 느끼며 지금의 제 모습에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오이타현에서 근무하게 될 ALT·CIR들이 멋진 경험을 하게 되기를, 또한 모두의 앞으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보드를 들고 마음을 나갔어요!



설명하고 있는 모습



오이타현으로의 첫걸음 !!



### 여름의 풍경

중국국제교류원 진한위



올여름, 처음으로 나가하마 신사 여름 대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타코야키 등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신사 쪽에서 오키야시(囃子) 소리가 들리면서 카구라(神樂)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후레이시(五方礼) 칸야라이(神逐)까지 일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카구라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흥미로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을 치는 마을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같은 자세로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시고 허리도 아프셨을 텐데, 무대에서 청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중국에도 다양한 전통 예능이 있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감동했고, 저도 모르게 무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타코야키와 나

### 카구라



칸야라이(神逐)



고후레이시(五方礼始)

# From our Reporters

## 국제교류원 소식



### 그리운 학식 : 토리자가의 맛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토리자가'는 대학교 학식으로 자주 먹었던 닭고기 감자 조림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닭다리살을 굵고 그 다음, 감자, 당근, 양파를 썰어서 소스와 함께 조리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야채의 향과 고소한 닭고기를 된장과 간장이 감싸는 맛이 학생 시절을 떠올려주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APU카페테리아 (학식) 로 달려가 닭고기 감자조림을 주문해 흰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떠들썩한 대학 친구들은 없지만, 여전히 오랜만에 먹은 토리자가는 역시 맛있었습니다. 그리운 추억의 맛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음에는 학교에서 두번째로 자주 먹었던 양파소스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재료준비~♪



요리 시작!



완성☆≡



### 오이타생활 스타트!

미국국제교류원 린 엘리시아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7월 말에 오이타시에 도착하고 벌써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외국인 미국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해외로 이사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도 있었지만, 첫 일주일 동안 오이타에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리 도구가 없어서 자주 외식을 했습니다. 그때 갔던 한 소바집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가게에 저 혼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가 일본에 막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자루소바 먹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게 썬 파와 곱게 간 무로 간을 맞추는 방법, 와사비를 조금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튀김을 말차 가루에 찍어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고 신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나온 소바유(そば湯)를 내주면서 남은 찌유에 넣으면 맛있게 국으로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맛있는 소바와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친절한 직원 덕분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먹고 싶습니다.

또한, 오이타에서 지내면서 제2의 집처럼 많은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이로 짬



말차가루와 함께...♪



# What's Up, OITA!



가 드리는 공지

## 국제교류원을 파견합니다!

국제정책과에는 **국제교류원 (CIR)**을 강사로 파견하여 각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세계의 문화와 생활을 배워 보지 않으시겠어요?

**파견가능한 국제교류원: 영국, 미국, 중국, 한국**

### 개요

- 대상 오이타 현 내 학교 · 지역단체 · 공민관 등
- 시간 평일 9:00 ~ 17:00 (상당 가능)
- 내용 국제교류원 출신 국가의 문화 · 관광 · 식사 · 놀이 등을 소개!
- 비용 파견비용은 무료! (교통비 및 재료비는 의뢰측 부담)

### 신청방법

- ① 우선은 전화로 상담!
- ② 일정과 내용을 확인 한 후,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 ③ 국제교류원과 메일 등으로 사전 조율
- ④ 당일 방문한 국제 교류원과 즐겁게 배워봅시다!

### 주의사항

파견일시와 내용 등에 따라,  
파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국제교류원의 파견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분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기다립니다!  
(양식 자유)

[기사제공 / 문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담당 : 후지카와, 나카야마

[메일] a10140@pref.oita.lg.jp

**모집 중!**

